

알바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김재설, 전미애, 김다니엘 기도편지

2024년에도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 아쉬운 것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 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의 반이 지났는데, 계획은 저 멀리 떠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짜이(Gjocaj)의 성탄, 사랑 나눔

성탄절에는 보통 외국에서 알바니아에 들어오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주로 서유럽의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물인데, 이번에는 선물이 없었습니다. 신발 박스 정도되는 크기에 자잘한 선물을 채워서 알바니아에 보내주면, 그것을 받은 단체에서 다시 알바니아의 교회에 나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수량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선물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자그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후에, 그림에 색칠을 하는 활동을 하는데, 집에서도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색싸인펜을 준비했습니다. 장난감과 학용품을 파는 큰 매장에서 사서 포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예년처럼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이 작은 선물이 그들에게 성경말씀을 기억하고, 그림을 색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선물 받고 사진 한 컷



안드라(Andrra)의 색칠

바이야메 아주머니 심방

조짜이에서 저희를 반겨주는 사두쉬 아저씨의 부인, 바이야메 아주머니가 백내장 눈 수술을 했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손을 다녔었고, 이제는 눈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다음 날에 심방을 갔습니다. 역시 반갑게 맞아해 줍니다.

알바니아에서 인사는 가족들의 안부를 꼭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식구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도 이탈리아와 벨기에에 살고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안부를 묻으니 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간 이용범선교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뭘 이렇게 오렌지 선물까지... 심방하면 선물도 받네요.

기도를 했습니다.

바이야메 아주머니와 사두쉬 아저씨는 저희 가정에 큰 선물입니다. 처음 조짜이를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환영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 모든 식구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더 건강해서 믿음 안에 좋은 교제를 계속하길 소망합니다. 심방을 와줬다고 이 가정이 식사 초대해 주셔서, 좋은 식당에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짜이 성경 공부에 새 멤버들 참여

어린이 모임에 나오는 멜리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리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멜리사의 엄마 안나마리아가 어린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정교회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제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듣고 마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성경공부 후에 기념 사진

어린 안드라를 데리고 어린이 모임에 나온 엄마 안젤라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참석합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잘 심겨져야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행복에의 초대'라는 교재를 가지고 1월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티라나 주님의 길 교회/ 죠발린, 마리아나, 도니, 도나, 일리아다, 이솔다, 부르나, 아니에자, 사라의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전도가 잘 되어 어린이 모임이 다시 시작되고,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2. 조짜이 기쁨의 집 교회/ 어린이 모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잘 영접하도록, 청소년/청년/부인들(특히 안나마리아, 안젤라)의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도록, 사두쉬 아저씨와 바이야메 아주머니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3. 에그나티아 모임/ 현지인 사역자들이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고, 각 교회가 부흥하도록
4. 김재설 선교사가 알바니아 한인선교사회 회장으로 2024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교사들의 필요을 잘 채우고 섬기도록
5. 가정/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과 삶에 무리가 없도록, 다니엘이 적성과 비전과 진로를 잘 찾도록, 전미애 선교사가 2월에 목사안수 받으러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파송교회(천안중부교회)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연락처

메일: jcinseol@gmail.com
 카톡 아이디: jcinseol (김재설)
 전화번호 : +355-69-601-7318(김재설)
 +355-69-601-7319(전미애)

후원안내

303-04-00002-083 (하나은행 / GMP김재설)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선교회 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37-7191)

<http://go.missionfund.org/jcinseol>
 미션펀드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